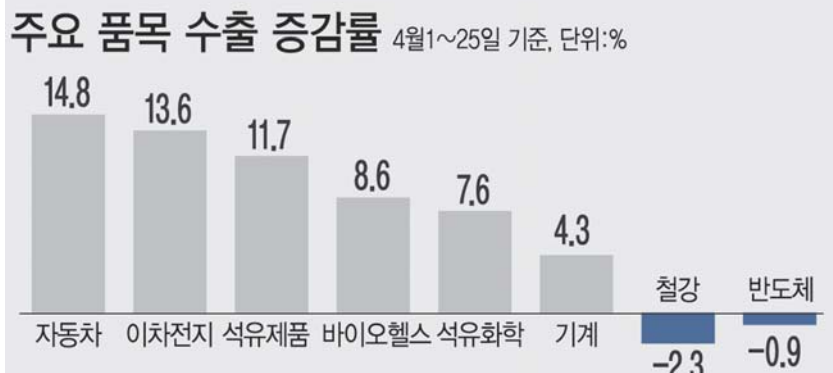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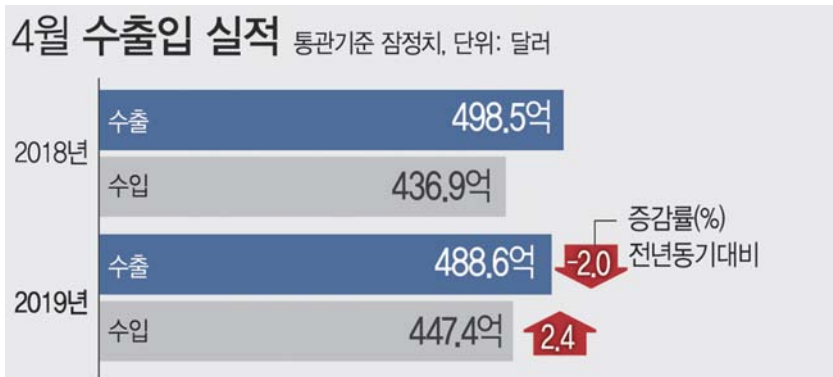


반도체·中 경기 탓에 4월 수출 2.0% ↓

산업통상부, 5개월 연속 하락...반도체 제외하면 0.8% 증가

자동차 5.8% ↑ · 선박 53.6% ↑ · 수입, 447.4억 2.4% 늘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 단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수출액이 전년동기보다 2.0% 감소한 48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12월(-1.3%)을 시

작으로 올해 1월(-6.2%), 2월(-11.4%), 3월(-8.2%)에 이어 4월까지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2개월 연속 둔화됐다.

4월 수출의 전체 물량은 2.5% 증가했다. 품목별 물량이 지난해 25일 기준 자동차(+14.8%), 이차전지(+13.6), 석유제품(+11.7), 바이오헬스(+8.6), 석유화학(+7.6), 기계(+4.3) 등은 증가했다. 반면에 철강

(-2.3%)과 반도체(-0.9%) 등은 감소했다.

전체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반도체 단가 하락과 수요부진이 4월 수출에 타격을 줬다. 실제로 4월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반도체가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반도체 수출액은 84억5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5%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단가가 51.0%나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센터 재고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으로의 스마트폰 수요가 정체된 점도 악영향을 끼쳤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38억9400만 달러로 5.7% 줄었다. 수출물량이 7.6% 증가했음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의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자동차(+5.8%)와 선박(+53.6%), 일반기계(+0.3%) 등 주력 품목을 비롯해 바이오헬스(+23.3%), 이차전지(+13.4%), 전기차(+14.1) 등 신(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은 호조세를 지속했다.

지역별로 중국과 일본의 수출은 감소했지만 감소율은 완화되는 추세다. 미국과 신흥시장인 베트남, 인도, 북미국가연합(CIS), 중남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4.5%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경기부

양책과 중국의 세계 수출 확대 등으로 중국 수출 감소율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수출은 우리 기업의 완성차 수요 증가에 따른 '자동차', 미국 설비투자 증가 영향을 받은 '일반기계', 5세대(5G) 통신망 건설 및 우리기업의 현지 장비 공급 증가로 인한 '무선통신기기' 덕분에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도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산 스마트폰의 현지 판매 호조에 따른 '반도체', 인도 내 우리기업 완성차 테스트 진행에 따른 부품 수입 증가로 인한 '차부품', 인도 섬유 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세에 힘입은 '섬유'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4% 늘어난 447억4000만 달러를 시현했다. 무역수지는 41억2000만 달러로 8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근본적인 수출 체질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시스템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미래차·바이오헬스·소재부품장비 발전전략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겠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수출성장동력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2단계 수출활력촉진단을 5월부터 가동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수출현장을 방문해 수출기업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추경에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에 323억원이 편성됐는데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달 LPG가격 오른다

3개월 동결에 가격 상승폭 일부 반영

지난 3월 하순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가 폐지된 가운데 이달 LPG 가격이 5%가량 오른다.

LPG 유통업체인 SK가스와E1은 5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kg당68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국제 LPG가격 상승에도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지난 3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다.

E1 관계자는 "국제 가격 및 환율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3개월간 약 120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이 중 일부만 반영해 5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

했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통보한 국제 LPG 가격(CP Contract Price)을 기반으로 환율과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E1의 경우 차량용 부탄은 kg당 1213원에서 1281원으로 오른다. 1 기준으로는 708.47원에서 748.18원으로 39.71원 인상된다.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는 프로판(가정·상업용)은 kg당 872.8원에서 940.8이 된다.

뉴스

편리하고 혜택 커진 선불카드 '인기'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도 발급이 편리하고 다양한 제휴처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필두로 선불카드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코나이는 지난 2017년 선불카드인 '코나카드'를 출시했다. 출시와 동시에 코나카드는 스타벅스 30%, GS25 10%, 롯데시네마

민에 발급 건수 100만장을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드는 연결된 금융계좌에서 충전한 카카오페이머니로 전국 모든 오프라인 카드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카카오로 '더보기'로 들어가 '카카오페이' 메뉴에서 '페이카드'를 선택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카카오페

뉴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7일부터 2676호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67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는 기존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유형별 공급규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6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 1063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7호다.

입주자격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

원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은행, 1분기 당기순이익 453억원 달성

최고 수준 자산 건전성 유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19년 1분기 당기순이익(공시 기준) 453억 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건전성 관리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0.55%와 연체비율 0.56%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6.64%, 보통주자본비율은 13.16%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4%p, 1.08%p 증가해 자본 적정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안정적 경영실적의 배경에는 저원가성 핵심예금과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증가, 내실 위주의 집적 성장 추진, 선제적인 자산 건전성 관

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광주은행은 설명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중소기업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틈새시장을 공략, 내실 있는 집적 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출과 서민금융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을 포함한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는 2019년 1분기 연결 누계 기준 975억 원(지배지분 9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6%(지배지분 44.1%) 증가한 실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이다.

서은홍 기자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